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희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39호
서기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우리 마음이 곧 우주의 근본

돈을 잘 벌수 있는 비결

문 스님,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매달 한정된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보니 여유롭지 못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모든 게 생명이 있듯이 돈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탁자 같은 것도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있지 않죠. 움직여지고 돌아간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돈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권력과 통신력이 충분하니까 언제나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면서 자기 근본자리에 맡겨 놓으면 돈도 슬며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데서 부부가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즉 사람도 따뜻하게 고여주는 데로 이끌리게 돼 있거든요. 겉으로는 부부라고 하면서 말은 "어휴, 저거..." 이라고, 또 뭐라고 그럴까봐 하지 못할 말이 생긴다면 그건 벌써 찰다운 부부가 못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어떠한 문제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짐승 하나를 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짐승 속에 들어가

답 도라는 것은 전체가 공생(共生) 공용(公用) 공체(公體) 공식(共食) 하는 도리 속에서 잘나에 나무며 화하면서 바뀌고 돌아가는 자체를 확신하고 그게 물리가 터지면 무심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라는 것은 무엇을 규정지어서 나다 너다 하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부처도 부처라는 게 없는 것이 부처이지 "나는 깨달아서 부처다." 한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잘한다 권세가 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런 건 좀 빼버리고 겸손하라고 해서 삼 배를 올려라, 삼천 배를 올려라 하고 스님들이 절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고깃덩어리가 절 받으려고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 마음이 숙여지고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실

상할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을 잔뜩 쌓고 있어야 부자인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왜? 전부 내 돈이니까요. 그걸 왜 무겁게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주만물 어떻게 탄생했나요

문 과거로부터 여러 성현들도 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도를 해 오신 걸

도(道)란 무엇입니까

문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 세계라든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고 도를 깨친다든지 도를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도란 무엇이며, 도인이라든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진짜로 익어서 증생을 다 먹고 고도 그 씨가 되 남아서 다시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련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찾아먹을 줄 알고 남을 찾아 줄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들을 자기 빛으로 알고 모두가 들어 아님을 안다면, 한 찰나에 빛보다 더 빨리,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어느 속성이라도 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심 도리를 아는 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가 터져서 자기를 깨달아 돌아다니게,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 전력은 다 똑같은데 전구는 여러 가지가 따로 있는 그 도리를 알면 그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자유 도인이죠.

그러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돌로 보지 마시고 마음의 도리를 하루하루 체득해서, 꼭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편안하고 약한 것이 없어지고 선한 도리를 짓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만 하게 되고 부드러운 행만 하게 되니까 홀연히 밝게 참 자기의 소식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맛을 본다면, 한생각이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자식의 뿌리를 도와줄 수 있고, 위로는 조상들의 목은 빛도 갈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햇빛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처님과 내가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공부한 분들은 일체제 불교도 둘이 아니요, 일체 스님들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 모든 불레라 할지라도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아신다면 자유인으로서 여여하다고 할 것일 겁니다.

세간에서 선수행할 수 있는지

문 제가 알기로는 선(禪)이라는 건 스님들이 선방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생활선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세간에 살면서 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주 진리가 더불어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잘 맨 자고 움직일 땀 움직여지면서 잘나 돌아다니는 거죠? 또 우리 살아나가는 현재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생활이죠? 그 생활이 조금도 빈틈없이 행선(行禪)입니다.

생활 자체가 행선이자 진리요, 과학, 천체물리학과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라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있는 거고, 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마음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할 수 밖에도 잘나잘나 돌아가니까 어떤 거를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했다고

“ 돈도 생명이 있으니
베풀면 다시 돌아와
쌓아 놓기만 하면
돈이 도깨비가 돼요 ”

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공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두 몰록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하면서든 뭐 하면서든 밥 먹으면서든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참선이며 행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진리라는 거는 없고 참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울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또 고달프든지 즐겁든지 그 모두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나한테서 나오는 걸 알고 나한테 되놓고 맡겨놓는다면 모든 게 유유히 걸림 없이 돌아가게 되자 확보해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갈등이며 스트레스며 다 없어지고 업장이 다 녹아진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 외선이며 참선이며, 생활선법인 것입니다.

그대로 참선이고 진리이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라는 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겠습니까? 지금도 좋고 다니는 그 주인공을 믿습니다. 항상 애기하듯이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라는 걸 떠나서 마음으로 나를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나라는 이 걸때기를 믿지 말라고 부처님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20면으로 계속

전구 달라도 전력 하나이듯 상대와 돌아닌 도리 알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인

서 그 짐승이 돼 쥐야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거든요. 소의 속에는 소가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뱀 속에는 뱀이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할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된단 말입니다. 돈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철세처럼 다녀도 부자입니다. 난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를 털어줘야 돼요. 주고 다녀야지 끝내, 금방 주고 금방 주고 이러니까 들어오죠. 내가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쌓아 봐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버리죠.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 이 도리만 알면 돈이 저절로 들어와요. 누가 마음에서 돈 주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 돈 생각이 좋지, 가장 희박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맛이 있는 게 됩니까? 아, 이게 세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기로는 전생에서부터 윤회가 되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또 다음 세상에도 윤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태초에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 생명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의문이 생기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를 찾아보지만, 기독교의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을 뿐입니다. 궁금증이 더해만 갑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펼쳐버리고 마음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는가, 한마음은 어떻게 있어 왔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답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거대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나로부터 알고 간다면 우리가 맘대로 좀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이젠 옷을 벗어야겠다 하면 벗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천하 만물 만생이 다, 즉 말하자면 벌레에서부터 진화가 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의식 자체가 알지도 못하고 귀도 먹고 하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 어떻게 가다보면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보면 차원에 따라 눈이 뜨여지고 귀가 트여지거나 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알지 못해서 편안치 않게 살 수 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만법, 일체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주인공밖에 없다.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동이 될 때, 그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 때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이 아주 잘 익었다면 공각지를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 속껍데기가 짝 벌어져 가지고는 까려고 해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까져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는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으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듯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 생각이 나결랑은 맡겨놓고, 저 생각이 나결랑은 또 맡겨놔요. 울고 싶어도 그 자리를 붙들고 울고, 감사해도 그 자리를 붙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만 계속 해 봐요. 진짜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두 걸걸데기로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났을 때 남이 나의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들 자기 불 끄는다고 애를 쓰지 누가 대신해서 불 꺼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꿈에 보여주고 생시에도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 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아요?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라.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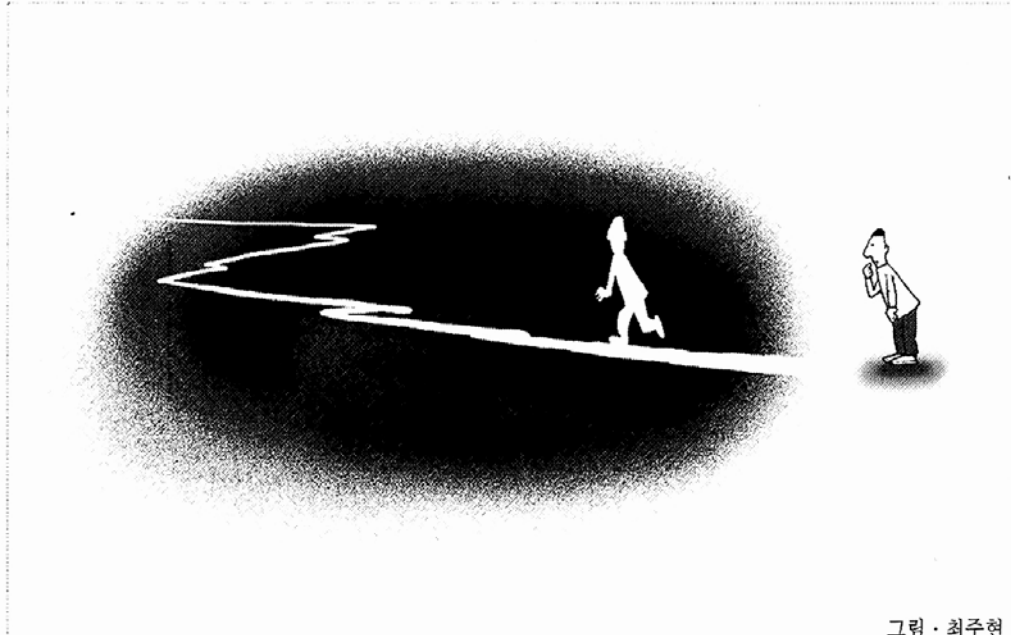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꾸본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름